

# 1

북창: 한국인의 일본인식 100년

## ‘문명개화’ 선망과 대일 적대심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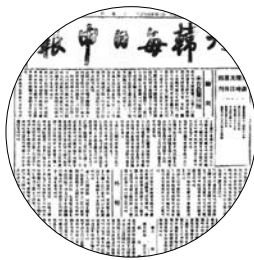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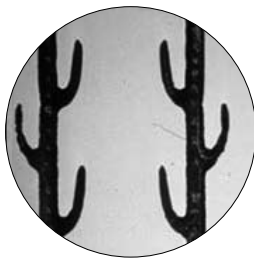
— 신채호의 일본관

박노자 (Vladimir Tikhonov)



■ (위) 망명 시절의 단재 신채호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백제문화의 일본전파설을 상징하는 칠지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독사신론』(1908년 8월 29일자), 1921년 북경에서 발행된 중국어잡지 『천고』 3호의 표지



## 1. 머리말

‘신채호’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연상하는 것은 ‘항일’일 것이다.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채호(1880~1936)란, 이미 ‘계몽주의 시대’인 1900년대 말에 가장 항일적인 어조로 ‘구국’(救國)을 부르짖었고, 1910~20년대에 망명지에서 무장항일투쟁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1928년에 일제 경찰에 체포된 뒤에 끝내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면서 결국 머나먼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항일투사’다. 물론 이 이미지는 꼭 실제와 다른 것은 아니다. 망명지에서의 비타협적 독립운동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일제 침략에 대한 입장에서 신채호는 구한말의 여러 논객 중 가장 분명했다. 일례로, 선배 박은식(1859~1925), 장지연(1864~1921) 등도——서로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일본발 아시아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많은 개화지식인들이 인종론적 ‘황인종 연대론’에서 매력을 발견했을 때 유력 논객 중에서는 신채호가 거의 유일하게 이와 같은 지적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다.<sup>1)</sup> 신채호가 ‘인종’, ‘혈통’에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인종보다 국

\* 지은이 | 박노자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University of Oslo) 인문학부에서 문화연구 및 동양언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노르웨이를 오가며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어로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한 활발한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등 다수가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05).

1)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 계열 지식인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 2000, 7~33쪽.

가를 우선시한 데다 “일인(日人)의 동양 운운은 국가를 확장하여 동양을 합병하려 하는 것”<sup>2)</sup>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개화’나 ‘인종’을 ‘독립’만큼 중요하거나 어쩌면 ‘독립’, ‘국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을 때에, 신채호의 동요 없는 확고한 입장은 ‘국가’, ‘국권’, ‘민족’ 본위주의였다. 한자어 투성이라서 읽기가 매우 곤란한 100여 년 전의 그의 문장들이 지금도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신채호가 일본을 오로지 적대시하기만 했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그의 복합적 세계관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우(愚)일 것이다. 그에게 일본이 오로지 ‘적’이었다면, 일본에 대해 다음 같은 언급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금일(今日) 일본도 구인(歐人)의 만압(慢壓)으로 유(由)하여 발흥(勃興)하였으며…….”<sup>3)</sup>

적대적 타자의 압력에 대한 반발로 애국심을 발하여 결국 파격적 발전을 이룬 주요 근대 국가, 즉 미국, 러시아 등을 나열하면서 한국인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했던 신채호는, ‘애국적 분발’의 여러 외국 모델 중에서 “유럽의 오만스러운 압력으로 인해서 결국 발흥에 도달한” 일본까지 언급했다. 즉, 그 당시의 신채호에게 일본이란 단순히 ‘적’이라기보다는 모종의 긍정적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개화 선배’이기도 했다. 일본을 배우자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대한제국 계몽주의자들의 구호였기에 놀랄 것도 별로 없지만, 이 부분은 ‘항일’의 상징으로서의 신채호의 이미지를 보다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게 그도 일본의 모습 속에서 ‘근대로의 첩경’을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가능성과 힘을 과대평가하려 하지도 않았다. 신채호는 대한제국 경내에서 일본이 최악의 제국주의 세력을 대표했다는 데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을 품지 않았지만, 미국 등 일본보다 힘이 월등히 강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주 지역만큼은 일본이 아무리 사력(死力)을 다해도 가히 독차지하지 못하리라고 예측했다. 즉, 그가——상당히 정확하게——파악한 일본은, 국제급 ‘강국’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동북아 일부지역에서만 힘을 뻗칠 수 있는 ‘2등 열강’ 정도였다. 그는 일본에

2) 「奇奇怪怪한 會名」,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7일자.

3) 「대한의 희망」,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11~20쪽.

충고까지 아끼지 않았다. “일본인이여 세계는 세계인의 세계라 일본의 독보(獨步)를 불허(不許)하나니 진정한 동양 평화의 책(策)을 집(執)하야 일본의 지위를 공고하며 동양의 행복을 유지함이 어찌 상책이 아닌가?”<sup>4)</sup>

여기에서 일본에 침략이 아닌 ‘진정한 아시아 연대’의 길을 제시하려 했던 안중근(1879~1910)과 같은 어투마저 감지할 수 있다. 한국이 완전히 식민화됐을 때 이와 같은 기대들은 일제히 무너졌지만, 망명 시절 신채호의 ‘일본’ 언급들이 무조건 ‘적대적’인 것만도 아니었다. 신채호는——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사대주의’를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치부하려 했던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을 일정 정도 공유하면서——유교든 불교든 공산주의든 외국 사상을 무조건 따르려는 조선인의 ‘노예적 특색’을 탄식하고, 공자나 맹스를 받아들여도 그 원산지와 다르게 ‘자기 식으로’ 수용한 일본을 조선의 대척점에 놓는다.<sup>5)</sup> ‘항일’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도 타협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일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일정한 ‘자기 중심주의’를 조선인에게도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했다. 그렇다면, 신채호의 일본관을 종합해 볼 때 그에게 침략국이자 ‘동양 개화’의 선구자인 일본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평생 쉽 없이 고대사에 대한 저술을 펴내면서 시사적 글쓰기와 정치 투쟁에도 매진했던 그에게 고대부터 제국주의시대까지의 일본의 종합적 모습은 어떻게 비쳐졌을까? 위에서 언급한 안중근의 경우에는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과 미래의 평등한 동아시아——나아가 아시아 전체의——연합, 즉 한-일 친선에 대한 간절한 꿈을 동시에 안고 갈 수 있었지만,<sup>6)</sup> 과연 신채호의 경우는 어땠는가? 신채호가 한국 민족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남한보다도 ‘대외 투쟁사’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sup>7)</sup> 등을 고려하면, 신채호의 일본관에 대한 정확한 파악

4) 「만주와 일본」,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2일자.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엮음,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2008, 728~730쪽에서 재인용.

5) 「낭객의 신년만필」, 『동아일보』 1925년 1월 2일자.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583~590쪽에서 재인용.

6) 도진순, 「안중근의 전쟁과 평화, 죽음과 죽음」, 『역사와 현실』 제75호, 2010, 247~279쪽.

7) 조인성,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북아역사논총』 제23호, 2009, 239~267쪽.

은 아직도 ‘민족주의’가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도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특히 한-일 관계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신채호가 생산한 담론의 영향권을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제자이자 적대자, 모델이자 침략자: 신채호가 본 일본의 이중성

국내에서 신채호는 일반적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로 기억됨과 동시에 ‘민족사학의 선구자’로도 기억된다. 조선의 ‘국사’를 집필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강화시키겠다는 저술가들이 신채호 이전 대한제국 시기에도 있었지만, 신채호가 쓴 1908년의 『독사신문』(『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7일~12월 13일 연재)이 기존의 왕조 중심의 기술체계를 혈통적 ‘민족’ 중심으로 처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에서 그는 분명히 ‘민족주의적 사학자 제1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독사신문』에서는 조선역사 전개의 주된 요소로 바로 ‘인종’ 내지 ‘민족’부터 꼽고 있는데, 벌써 ‘인종’과 관련된 모두(冒頭)의 꼭지에서부터 ‘일본’이 언급된다. 즉, 신채호가 조선민족을 ‘부여족’을 주족(主族)으로 하여 형성된 혼합민족으로 설정했는데, 그 ‘혼합’의 아주 미미한 부수적 요소 중의 하나로 바로 일본계 귀화인들이 언급된 것이었다. 신채호가 본 ‘일본’이란 근본적으로 “아(我) 민족 사천재(四千載) 대외 적국(敵國) 중에 교섭과 경쟁이 최열(最烈)한” 일종의 “천적”(天敵)인 데도, 그는 거인 중국이나 각종 북방 유목민족들에 비해서는 ‘적국’으로서의 일본을 그리 대단히 보는 것도 아니었다. 임진왜란을 제외하면 일본의 침략들은 한반도의 해안만을 괴롭혔을 뿐 내륙 지방 깊숙이 쳐들어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신채호의 설명이다. ‘적’으로서의 일본도 그렇게까지 치명적 존재는 아니었지만, 기자(箕子) 이후의 중국 귀화인이나 선비족, 말갈족, 토족(土族: 삼한 지역에서 살

8) 도면회,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체계의 확립」, 도면회·윤해동 엮음,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2009, 175~215쪽.

던 종족) 등과 비교했을 때에 한민족의 형성에 그리 크게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채호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귀화한 일본인은 “수백 년간 두 사람”(사실상 전설적 인물인 신라 초기의 호공 瓠公, 그리고 임진왜란 시절의 김충선 金忠善) 정도였다.<sup>9)</sup> 요컨대, 고조선-부여-고구려 등 ‘북방’ 위주로 전개된 신채호의 고대사 판도로서는 좋게든 나쁘게든 주로 남한 지역과 연관을 가져 온 ‘일본’이란, 역사적으로 다소 부수적 존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비록 ‘부수적 존재’라고 해도 신채호가 구상한 고대사에서 결코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었다. 신채호는 일단, 김택영(1850~1927) 같은 대선배조차 『동사집략』(1902)이나 『역사집략』(1905)에서 일본 사료에 근거하여 일부분 받아들였던<sup>10)</sup> ‘임나일본부설’이라든가, 그 당시 조선사와 관련된 일본 저술에서 만연했던 진구(神功)황후 신라정벌설 등을 무조건 배척했다. 현채(1886~1925)와 같은 당시의 유명한 대중적 역사 저술가도 그의 『동국사략』(1906)과 『중등교과동국사략』(1908)에서 비록 ‘일본부’까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력이 미약했던 임나(=대가야)가 일본과 왕래가 빈번하여 그 견제를 받았다는 식으로 서술했는데,<sup>11)</sup> 이에 비해서 신채호의 ‘임나일본부설 절대 부정’의 입장은 훨씬 급진적이었다. 현채 등과 달리 신채호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아예 고대 일본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등 일종의 ‘역사적 역공’을 시도하기도 한다. 즉, 그는 조선 중기의 이차 자료(김세림의 『해사록』 海槎錄 등)를 근거로 해서 신라의 태종무열왕(재위 654~661)이 백제를 치기 전에 일본열도의 오사가 지역을 먼저 정벌했다는, 일차 자료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다소 이색적인 주장을 내세운다. 한마디로 신채호에게 고대 일본이란 한반도를 점령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역으로 부여족이 ‘무위’(武威)를 떨쳤던 한반도 주위의 약체 정도였다.<sup>12)</sup>

9)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311쪽.

10) 도면회,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193쪽.

11) 도면회,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207쪽; 윤선태, 「통일신라」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 제29집, 2007, 121~138쪽.

12)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327쪽.

고대 일본이 한반도보다 열위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은, 신채호에게 또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비록 통일된 고대 왕국(“여러 부락을 통합한 일대국(壹大國)”)을 만든 일본인들이 신라가 강성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라의 해안을 침범했지만, 백제에 대해서는 항상 숭배, 흠모하여 ‘문자와 미술도 백제에서 수입했을 뿐더러 그 인종도 다수 백제인으로 조직됐다’는 것이었다. 신채호에 의하면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시종일관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처럼 선진국과 후진적 부족, 정치적으로 우월한 세력과 비교적으로 약한 세력 사이의 상하 관계였던 것이다. 일본을 늘 ‘교도’(敎導)한 백제가 그 반대급부로 일본계 용병을 계속 이용할 수 있었는데, 결국 타국 병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백제 망국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은 신채호의 논리이기도 했다.<sup>13)</sup>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채호가 본 고대 일본이란 “우리가 가르쳐 주고 이용한 미개야인(未開野人)” 정도였다.

“일본은 원래 우리들의 열등한 제자이자 우리 역사 전개의 부수적 변수일 뿐”이라는 주장은 두말할 것 없이 일차적으로 일본의 초기 식민사관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애당초 신채호에게 고대사 저술에 대한 자극을 준 것은, 현재 등 많은 국내 역사 저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1854~1922)의 『조선사』(朝鮮史, 1892)라는, 초기 식민사관의 전형에 가까운 저서였다.<sup>14)</sup> 하야시의 책에서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이 역사적 사실로 취급된 데다가 백제는 고대 일본의 ‘피(被)보호국’쯤으로 묘사돼 있는데,<sup>15)</sup> 신채호는 이와 같은 저술 태도를 의욕적으로 뒤집어 오히려 백제를 주(主)로 일본을 객(客)으로 각각 서술한 셈이다. 하야시가 일본에 대한 백제의 문화수출을 주로 백제인의 ‘조공’과 ‘귀화’로 표현했지만, 신채호는 백제 중심의 입장에서 고대 일본이 백제를 ‘배웠다’고 봤다. 그런데 과연 일본에 대한 백제의 ‘문화 전수’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는 이미 일본인의 기존 연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1864~1918) 등 일본에서

13)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328, 335쪽.

14) 김여철, 『한국개화기의 국사교과서와 역사인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5) 林泰輔, 『朝鮮史』, 간행자미상, 1892, 53~67쪽.

한-일 고대 관계사 관련 사료 정리를 최초로 시도한 학자들이 이미——비록 의도는 정반대였지만—— 꽤나 상세한 기초적 문헌 고증을 실행한 바 있었다.<sup>16)</sup> 일본 학자들에게 대개 한반도, 특히 백제 지역과 일본 사이의 고대 이후의 ‘관련성’이 중요했던 반면, 신채호에게는 조선인의 역사적 ‘우월성’을 담론적으로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결국 양쪽 모두 ‘백제와 일본의 관계’라는 테마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게 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으로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 ‘조선’이라는 ‘역사적 피(被)보호자’가 필요했지만, 대한제국 시기의 조선측의 방어적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조차 긍정적 자아상의 확립 차원에서 ‘일본’이라는 ‘옛날 제자’가 필요했다. 신채호와 일본 학자들이 처한 상황이야 침략국과 피침략국의 차이만큼 확연히 달랐지만, ‘타자를 통한 역사적 자아의 확립’이라는 내셔널리즘적 명제는 같았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제국 시절에 고대사에서의 일본에 대한 백제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대적 ‘자아상 확립’을 시도한 것은 꼭 신채호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추성자’(秋醒子)라는 필명의 필자는 『독사신론』이 출판된 그 다음 해에 한국의 역사적 ‘문화수출’에 대한 글에서 백제 시기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일본으로의 유교, 불교 문화와 미술, 예술, 공예 등의 수출 연혁을 『일본서기』 등의 자료를 뽑아 소개했다.<sup>17)</sup> 필자의 의도야 강제 병합을 앞두고 있는 대한제국 식자층의 ‘자존심 확립’이었겠지만, 그가 한반도 등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늘 주체적으로, “그 국체(國體)에 상응하여” 적용하는 일본과 대비하여 한국이 고대 이후로 문화수출의 능력을 잃어 침체에 빠졌다고 본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본 식민사관에서 말하는 한국사 ‘정체론’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의도는 반(反)식민주의적이라 해도, 서구적 (내지 일본적) ‘근대’만을 역사의 바람직한 종점으로 보는 목적론적인 근대지상주의적 역사기술은 불가피하게 ‘근대’를 가시적으로 배제시키지 못한 조선에 대한 ‘정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착되곤 했다. 사실 발해의 망국과 ‘만주 고토의 상실’ 이후의 조선사를 대체로 ‘쇠퇴 일본도’로

16) 吉田東伍, 『日韓古史断』, 富山房書店, 1893, 75~112쪽

17) 『我國古代文明의 流出』, 『서북학회월보』 제17집, 1909년 11월, 5~8쪽.



보면서<sup>18)</sup> 이순신 등 소수의 ‘영웅’에게만 긍정적 평가를 내렸던 신채호도, 궁극적으로 특히 조선시대사에 대해 일종의 ‘정체론’을 수용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간에 큰 인기를 누렸던<sup>19)</sup> 『독사신문』의 영향이 주효하여 ‘백제의 제자인 고대 일본’이라는 등식이 국내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에서 하나의 공식을 이루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언론도 고대 한-일 문화교류에 있어서 한국의 ‘우위’를 강조했지만,<sup>20)</sup> 최남선(1890~1957)과 같은 국내의 온건한 ‘문화 민족주의자’들도 단순한 ‘일본의 백제문화 수입’에 그치지 않고 ‘일본 인종이 다수의 백제인으로 조직됐다’는 것을 강조한 신채호처럼 ‘아마토 정권 수립의 주체’로서 부여 계통의 한반도 이주민 집단을 상정했다.<sup>21)</sup> 이 논조는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점점 일본의 어용적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쪽으로 기울어져 갔지만<sup>22)</sup> 192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신채호의 논리대로 최남선에 의해서 일본이 일종의 ‘동생’으로 묘사되었다. 해방 이후에 남·북한 양쪽의 공식적 역사서술 체계에 수용된 이 ‘백제문화 수출’의 강조는 지금까지도 한반도인의 ‘민족적 자긍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고대 일본이 ‘고구려에 복속된 말갈’과 같은 격으로 백제의 ‘어린 제자’였다면, 1900년대에 신채호가 상대해야 했던 근대화된 일본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차적으로는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조선민족에 ‘멸망’, ‘멸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국주의 침략자’였다. ‘국권’보다 ‘개화’나 ‘황인종 보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는다 해도 일말의 대일(對日) 기대를 가졌던 다른 논객들에 비해서 구한말 신채호 특유의 논조는 훨씬 더 ‘국권’ 중심이었다. 인종론적 ‘한일 연대’ 주장이 꽤나 강하게 제기됐던 통감부 시절에 신채호는 ‘국가 보존’(保國)만이 진정한 자구책이고 ‘인종’에 대한 수사가 현실 정치에 잘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23)</sup>

18)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338~339쪽.

19)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ii쪽.

20) 예컨대 『韓倭關係古今 一』(『독립신문』 1924년 1월 19일자) 등 참조.

21) 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180~181쪽.

22) 류시현, 『최남선 연구』, 230~231쪽.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외에서 무장 독립투쟁의 노선을 견지해 온 망명 시절 신채호의 적대적 일본관은 더욱더 첨예해졌다. 예컨대 그가 1921년에 북경에서 발행했던 중국어 잡지 『천고』(天鼓)의 창간호에는 ‘절굉생’(折肱生)이라는 필명의 필자가 쓴 「왜인들이 말하는 친선이란 이런 것이다」(倭所爲親善者如是)라는 글(10~14쪽)이 보인다. 이 글은 신채호의 저술로 간주되는데, 이 글에서 일본은 시종일관 조선의 ‘천적’(天敵)으로 역할해 온 나라로 묘사된다. “배덕(背德)이 천성인 왜인들”이 은인이라고 할 백제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 그 군현을 침략하려 했으며, 고려와의 친선을 맺으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약탈만을 도모했고, 조선과 친선을 맺는 척하다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며, 김옥균(1851~1894) 등 개화당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고종을 일본으로 납치하여 서울을 점령하려는 음모를 꾀하다가 결국 개화주의자들을 배신, 마지막으로 “한일친선”의 간판 하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았다는 것이 이 한일관계사 개요의 줄거리였다. 나아가서 신채호는—— 주로 중국인 독자층을 겨냥했던 잡지 『천고』의 특색을 살려서—— “적 일본”이 앞으로 산동성의 불법 점거에 그치지 않고 만주,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 전체를 침략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한일친선”도 “중일친선”도 끝내 어불성설일 뿐이란 결론을 내렸다.<sup>24)</sup> 완전히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역사서술이었지만,<sup>25)</sup> 신채호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타자가 근대적 내셔널리즘에서 늘 요구되는 바깥의 ‘적대적 타자’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반의 그가 본 일본은 ‘적’일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적’이기도 했다. 고대 일본의 문화는 백제 등 고대 한반도 문화의 모방에 불과하고, 신란(親鸞, 1173~1263)의 종교 개혁은 원효(617~686)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는 등, 일본의 모든 장점들은 한반도로부터의 ‘문화 수입’에 의거했으며, 근대 일본의 ‘문명개화’란 무분별한 서구 모방에 불과했다는 것은 『천고』 창간호에서 보이는 또 하

23) 『保種保國이 元非二件』,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3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620~621쪽에서 재인용.

24) 『단재신채호전집』 제5권, 316~320쪽

25) 예를 들어 왜(倭) 정권의 백제 지원 시도(660년대 초반)들을 ‘침략 준비’로 볼 근거는 없다(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역사 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45~59쪽). 마찬가지로, 갑신정변 시절에 일본 공사가 고종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박은숙, 『갑신정변 연구』, 역사비평사, 2005, 488~503쪽).

나의 일본 관련 주장이었다(「일본의 有罪無功」).<sup>26)</sup> 신채호는 이 ‘무가치한 적’ 일본에게 그 범죄에 대한 도덕적 참회 등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한반도로부터의 무조건적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sup>27)</sup> “적 일본”에게 참회할 만큼의 도덕적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자국민의 내부 단결과 투지(鬪志)를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적대적 타자’라 해도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대적 타자’의 담론적 공격에 대한 ‘응전’(應戰, response)은 대개 ‘대응적’(reactive) 내셔널리즘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곤 한다. 신채호의 일본관도 이와 같은 특색을 보여 준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원래부터 우리의 동생이자 제자였다”는 고대사와 관련된 그의 주장도 결국 초기 식민사관에 대한 일종의 ‘응전’이었지만, 상당수의 시사적 주장들도 일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성격은 짙었다. 예컨대 한반도를 지형적으로 “동양의 이탈리아”로 보면서도 대한제국이 유럽의 이탈리아와 달리 독립할 만한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한 일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신채호는 한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시절에 바로 고대 로마처럼 주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하면서, “한국형 마치니(Mazzini)”가 일어나 한국을 이탈리아와 같은 독립과 자존의 경지로 반드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sup>28)</sup> 즉 한국의 ‘반도적 성격’을 열등성의 근거로 삼아 보려는 일본형 민족주의와 맞부딪치면서, 역으로 ‘반도적 성격’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개발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한국과 관련된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모든 발상들을 무조건 거부한 것인가? 근대지상주의적 발상이라면, 근대 지향성이 대단히 강했던 신채호는 그 발상을 꼭 거부하려 하지 않았고 일부를 오히려 자신의 민족주의 이데올

26) 『단재신채호전집』 제5권, 326~332쪽에서 재인용. 원호나 경흥 등 신라 승려들의 교학이 일본 중세 정토교학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신채호가 생각했던 만큼 절대적 영향은 아니었다. Robert Buswell(ed.), *Currents and Countercurrents: Korean Influences on the East Asian Buddhist Tradi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 43~73.

27) 「우리의 惟一 요구」, 『革新公報』, 1919년 12월 25일자.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562쪽에서 재인용.

28) 「東洋伊太利」,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28~29일자.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661~664쪽에서 재인용.

로기 속으로 흡수하기까지 했다. 예컨대 1900년대 말 쓰여진 한 편의 글에서 신채호는 “일본인들이 외국 문화를 수용할 때에 반드시 그 문화를 일본화시킨다”는 일본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교 등을 한국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을 유교화시킨 한국인의 ‘잘못된 국민성’을 한탄했다.<sup>29)</sup> 일본인의 ‘주체성’과 한국인의 ‘타율성’을 대조시키는 것은 바로 일본 식민사관의 골자 중의 하나였는데, 신채호는——비록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이 부분을 사실상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메이지 시대 일본 계몽주의자들이 유교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념을 ‘노예교육’ 이상으로 보지 않으려 했기에, 한국의 유교적 전통사회를 ‘타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묘한 근대지상주의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sup>30)</sup>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신채호는 고구려인의 “상무(尙武)정신”이 전장에 나갈 때에 죽기를 갈망하는 일본인의 “기전사”(祈戰死)정신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했지만,<sup>31)</sup> 근세와 현재의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보는 바와 꼭 같은 “자유도 정의도 모르는 세력가의 노예, 옛사상의 노예, 사리사욕과 미신의 노예”일 뿐이라고 보았다.<sup>32)</sup> 물론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한국인의 ‘노예성’이 오리엔탈리즘적 비하에 불과했다면 신채호의 ‘한국인 노예근성’ 담론이 유교적 ‘자책’, ‘반성’의 정신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반성’의 가치론적 근거가 일본이 제공해 준 근대지상주의적 준거들이었다는 것만큼은 자명하다. 한마디로 1900년대 계몽주의 시기의 신채호가 고대 일본을 한국적 민족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들의 동생이자 제자”쯤으로 봤다면, 근대 조선은 일본 내지 서구적 ‘근대인’의 눈으로 응시하면서 그 속에서 ‘노예성’과 ‘타

29) 「삼국 이후의 한국은 其國性이」,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2일자.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537쪽.

30) 일제 식민사관의 ‘타율성’ 논리 등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강진철, 「정체성이론 비판」, 『한국사시민강좌』 제1집, 1987, 20~52쪽; Marc Caprio,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0~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pp. 81~110.

31) 「余가 왕년에 一史學先生을 遇하니」,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5일자.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540~541쪽에서 재인용.

32) 「二十世紀新國民」,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연재.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737~740쪽에서 재인용.

울성' 등 주로 부정적 측면만을 발견하려 했다. 일본이라는 '유의미한 타자'를 부단히 상대해야 했던 신채호로서는 고대 조선은 일본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스승의 나라'이자 '상무정신의 국민'이었지만 근대 조선은 일본보다 열등한 '실패자'에 가까웠다. 근대지상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지식인으로서 느꼈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신채호가 1919년의 3·1 운동을 보고 드디어 '민중'을 발견한 뒤에야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었다. 1922년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한 신채호에게 일본은 이제 '근대화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거의 잃은, '적 강도'일 뿐이었다.<sup>33)</sup> 하지만 이때에도,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신채호가 근대지상주의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 3. 신채호 일본관의 창조적 극복을 위해서

절대적이다 싶은 신채호의 정치적 비타협성을 근현대 한국사에서 흉내낼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신채호의 일본관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양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고대 일본의 역사를 일차적으로 '삼국, 특히 백제문화 수입' 위주로 보는 것은 남한 사학에서 거의 통념화되었다. 이병도(1896~1989)와 같은 남한 사학의 실질적 '원조'의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실증'보다 '민족주의적 당위'를 우위에 두었던 신채호는 "문장이 참신하고 박학했지만 생활 여건과 자료접근 여건이 좋지 못해 깊이 연구하지 못한" '준(準)학자'였을 뿐이지만,<sup>34)</sup> 이병도 역시 자신의 권위 있는 개설서인 『한국사: 고대편』에서 일본의 아스카(538~710) 문화를 가리켜 "전체적으로 백제인의 선물, 백제문명의 연장"이라고 단언했다.<sup>35)</sup> "고대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행동을 했다고기보다는 태종무열왕이 오사카 지역을 정벌한 게 맞다"는——사실상 자료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현대 남한 사학에서도 거의 취신되어지지 않는——신채호의 언급은,

33)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한길사, 1984, 242~249쪽.

34) 진단학회 엮음, 『역사가의 유형』, 일조각, 1991, 219쪽.

35) 이병도·김재원, 『한국사: 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612쪽.

북한에서 1960년대 이후 일종의 ‘통설’이 된 ‘분국(分國)설’<sup>36)</sup>(고대 삼국이 일본열도에서 ‘분국’들을 만들어 식민지화했다는 학설)의 근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대 일본을 마치 고대 한반도 국가들의 ‘식민지’쯤으로 설정한 북한 학설이야 남한 등 북한 이외의 학계에서는 거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고대 일본문화에 백제문화 등이 끼친 ‘큰 영향’을 강조하는 대목은 남한의 국사교과서에 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sup>37)</sup>

고대 한반도에서 흘러들어간 문화가 일본열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정도는 이미 일본학계나 구미학계에서도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신채호의 민족주의적 한일관계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내의 개설서나 교과서들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영향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 유교적 텍스트나 불교 경전, 미술, 공예 등을 중심으로 한 백제 계통의 ‘수입’ 문화는 대체로 백제에서 나름대로 소화된 보편적인 지역적(즉, 중국에서 발산되어 동아시아 전체에 퍼진) 문화였지 꼭 ‘백제문화’라고 특수화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화였다. 또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중국문화를 직수입하기도 했으며, 나름대로의 토착적 전통을 계속 간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모노노베(物部) 같은 주요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한 550~580년대의 ‘배불’(排佛)파의 존재<sup>38)</sup>를, 백제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영향’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대 일본을 백제의 문명적 ‘속국’ 내지 ‘연장’으로 본다는 것은 명백히 일종의 ‘한국형 팽창주의 사관’에 해당될 것이다. 신채호가 주축이 되어 개화기에 처음으로 성립된 이 같은 사관은, 백제와 고대 일본의 ‘밀접성’을 강조하면서도 묘하게 고대 한반도로의 일본인 이주와 같은 부분을 보통 피하곤 했다. 일부 ‘왜인’들이 옛날에 ‘우리 땅’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왜인’들에게 가서 저들을 계몽했다는 ‘우리’ 본위의 ‘대외진출적’ 사관과 잘 부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 발굴된 일본계통의 유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국

36) 김태식, 『북한의 고대한일관계사 연구동향』, 역사학회 엮음, 『북한의 고대사연구』, 일조각, 1991.

37)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고등학교 국사』, 두산, 2002, 260~261쪽.

38) 田村圓澄, 『飛鳥時代倭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2010.

학계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화됐다.<sup>39)</sup> 일본의 ‘역사적 제국주의’에 ‘한국형 팽창주의 사관’이라는 방식으로——사실상 거의 똑같은 형태로——‘맞불’을 놓은 신채호의 사관은, 이제 와서야 천천히 극복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신채호가 본 것처럼 일본이 거의 2천 년에 이르는 한일관계사에서 늘 한반도인의 ‘천적’이기만 했을까? 식민화의 위협을 눈앞에 둔 100년 전의 애국적 지식인은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남한 학계의 중심적 움직임은 반대로 특히 조선시대의 한일교류 연구의 심화다. 1980~90년대 이후 남한 사학계가 본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임진왜란 등 짧은 시기 동안의 일본측 침략만을 제외한다면 압도적으로 ‘교린적’, 즉 파트너적 관계였다. 특히 나가사키의 중국인 거류지나 네덜란드인 거류지에 비해 몇 배나 더 넓은 부산의 왜관이, 조선 후기 한일무역의 높은 위상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제 통념이다.<sup>40)</sup>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남한과 일본의 가까운 교류 관계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신채호식 일본관의 극복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자본이 선봉이 되어 이끄는 한일관계의 전개 방식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일면으로는 ‘적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 적개심은 대일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극복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면으로는——1900년대의 계몽주의자 신채호도 한때 보여 주었던——일본이 표방했던 ‘문명 개화’에 대한 전망도 쉽게 보이는 것이다. 일제를 결사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신채호도 근대지상주의적 입장에서 “근대 일본의 발흥”을 선망하면서 조선의 ‘노예성’과 ‘정체’를 탄식했지만, 이제 와서는 일제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각의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들이 더더욱 열성적으로 조선의 독자적 근대 문화 발전의 불가능함과 일본식 근대 자본주의 이식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역설한다.<sup>41)</sup> “강도 일본”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을 넘어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맥락, 식민지 시대가 남긴 유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시도 자체는 참신한 면도 있다. 하지만 결국 조선인의 ‘노예성’을 한탄한 신

39) 예컨대 박천수의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사회평론, 2007)와 같은 선구적 업적 참조.

40)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역사 속의 한일관계』, 2009, 144~175쪽.

41) 관련된 논쟁을 이 책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교수신문 기획·엮음,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5.

채호나,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이식을 긍정 일변도로 보려는 근대의 일각의 논자들은 마찬가지로 근대지상주의적 시각에 매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가 꼭 ‘발전이 정제된 노예사회’고 근대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꼭 긍정적으로만 봐야 할 ‘발전’일 뿐인가? 사회진화론적 근대관을 받아들여 국민개병주의나 ‘상무정신’을 찬양했던 신채호도, ‘성공적으로 이식된’ 일제 시기 자본주의 제도 범위 내에서 단순한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 채 거의 근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대다수 조선인들의 끔찍한 가난이나, 특히 말기에 전체주의를 방불케 할 만큼 심했던 일제 통치기구의 억압성 등에 다소 무관심한 일각의 ‘뉴라이트’ 논객들도 결국 똑같이 근대지상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근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보려는 신채호의 시도는 바로 무정부주의의 수용이었지만, 결국 무정부주의자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마저도 ‘보수적 동양’의 상징인 미리님이 ‘진보적 서양에서 출발된 혁명 운동’의 상징인 드래곤에 의해 패하는 것처럼 ‘동양’은 늘 ‘노예성’, ‘보수성’과 등가화되어 있는 것이었다.<sup>42)</sup>

무정부주의 혁명가가 된 신채호마저도 상당히 서구중심주의적으로 이해한 ‘근대’에 대한 꿈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일본관도 결국 그의 근대관에 복속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로서 비(非)자본주의적 근대를 꿈꾸었던 말년의 신채호와 달리, 우리는 지금도 후기 자본주의의 욕망과 공포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 일본에 대한 흠모와 함께 “일본을 추격해야 한다”는 경쟁주의적 충동 등을 동시에 느낀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재생산되는 식민지 시기에 대한 ‘아픈 기억’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본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신채호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지난한 일이다. 과연 ‘극일’(克日)에 대한 야망과 과거 일본의 ‘앞선 발전’에 대한 열등감, 고대 일본이 ‘우리 제자’였다는 과장된 우월의식 등 모든 콤플렉스를 벗어난 일본관은, 언젠가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42) 『단재신채호전집』 제7권, 5~20쪽.



## 초록

### ‘문명개화’ 선망과 대일 적대심 사이에서: 신채호의 일본관 | 박노자

투고일자: 2010년 5월 11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본 논문은 신채호의 일본관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채호는 통념적으로 ‘항일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일본관은 꼭 일본에 대한 적대심만을 내포한 것은 아니었다. 개화기의 신채호는 ‘개화선배’로서의 일본의 ‘주체적 외부 문명 수용’ 등을 적지 않게 흠모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외부 문명 모방 지향’, 그리고 전근대적 한국 사회의 “노예성” 등을 부정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신채호의 시각은, 그 의도는 비록 신속한 ‘근대화’에 대한 열망에 기반했지만 그 형태는 사실상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정체성론”, “타율성론”과 일맥상통했다. 양쪽의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사회, 문화 측면에서 양쪽은 근대지상주의 영향권에 속했다. 1920년대의 무정부주의자 신채호는 대체로 더 이상 일본을 ‘모델’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비하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와 동시에 고대사학자로서의 신채호는 일본을 “백제의 제자”, 백제문화의 일종의 “연장”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한국인의 ‘민족적 자량’으로 인식했는데, 이와 같은 시각은 남북한 사학에서 그대로 계승, 발전됐다. 고대 일본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과 관련된 그의 평가는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백제와 일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 자체는 당시 일본 사학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소 균형을 잃은 신채호 식의 일본관은 이제 남한 사학에서 상당 부분 극복됐지만, 일본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최근 일각의 평가에서도 신채호와 같은 근대지상주의의 잔영(殘影)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신채호, 민족주의, 문명개화론, 사회진화론, 일본

### 한국병합 전후 한국신종교 창시자들의 일본관: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 | 박광수

투고일자: 2010년 6월 2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본고에서는 한국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동학(東學, 천도교)을 비롯하여,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증산교(甞山敎),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원불교(圓佛敎)를 중심으로, 한국병합(1910년)을 전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인, 일본에 대한 관점과 대응의 방식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수운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세력뿐만 아니라 일본세력의 확장은 조선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운은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의 임진왜란 등 조선침략과 한국인의 희생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일본을 원수로 설